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48



Contents

※ 2026.09.16.(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9.09.~2026.09.15.)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기후부,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 누리집 개통(2026.09.14)	1
– 광명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4대 분야 추진(2026.09.15)	1
– 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특위 구성 추진(2026.09.13)	2
– 창원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평가 2년 연속 1위(2026.09.10)	3
■ AI 분야	3
– 구윤철 부총리, ADB에 AI 혁신개발센터 출범 요청(2026.09.14)	3
– 과기정통부, AI 스타트업 31개사 실리콘밸리 진출(2026.09.14)	4
– 한-프랑스 정상, AI·반도체 미래 협력 확대 합의(2026.09.09)	5
– 수원시, 328억원 피지컬 AI 스마트도시 실행체계(2026.09.14)	5
– 경북도, AI·항공·바이오 핵심 인재 2만명 양성(2026.09.15)	6
– 서울시, 86조 투입 ‘G3 서울플랜’…청년 AI 지원(2026.09.10)	6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

- 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 지역화폐 연계(2026.09.15) 7
- 강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넷-제로 실천단 4기 발대(2026.09.13) 8

- AI 분야 9

- 한은, AI 고노출 일자리 증가분 80%가 수도권 집중(2026.09.15) 9
- 한수원, 국제물주간서 수력 AI·양수 역할 논의(2026.09.09) 10
- 에너지경제연구, AI 전력수요 속 LNG 장기물량 절벽(2026.09.09) 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1

- 탄소중립 분야 11

- 롯데-KAIST, 바이오·탄소중립 R&D센터 준공(2026.09.13) 11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계획 재수립 촉구(2026.09.15) 11
-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시민 환경전문가 30명 배출(2026.09.13) 12

- AI 분야 13

- KT클라우드, 2031년까지 AIDC 1GW 구축 목표(2026.09.15) 13
- 엑스페릭스, 공공 AX에 국산 NPU 풀스택 첫 적용(2026.09.15) 13
- 퓨리오사AI, 싱가포르 법인 설립...아태 시장 공략(2026.09.11) 14
- 엔비디아, 엔트로픽 IPO에 13.5조원 투자 논의(2026.09.14) 15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기후부,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 누리집 개통(2026.09.14)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의 일환으로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누리집을 개통하고 기후시민 1000만명을 모으는 범국민 기후행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히며, 지난 6월 출범한 ‘대한민국 기후행동’을 정부 정책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행동으로 확산하는 실행 기반의 마련을 추진 - 기후부는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기후행동 약속을 제시하고 기후시민 선언 이후 실제 행동에 나서면 탄소중립포인트와 연계해 보상받는 구조를 설계했으며, 통합누리집에서 자신의 기후행동 이력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해 선언 시 1000포인트, 실천·인증 시 추가 1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체계를 구성 - 매달 하나의 ‘중점 기후행동’을 선정해 다음 달에는 자전거 타기를 운영하고 공유 자전거 이용 시 1km당 100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창원시 참여로 추진하는 한편,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와 전기차 대여로 실천 분야를 넓히고 매월 22일 오후 9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을 이어가며 중앙·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를 계획
지자체	☐ 광명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4대 분야 추진(2026.09.15) - 경기 광명시가 15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도시 공간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구현 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와 교통, 안전, 데이터 등 4대 분야 10개 스마트서비스를 축으로 2024년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 전환을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총사업비는 국비 80억 원과 시비 80억 원, 민간투자금 등 180억여 원 규모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하배수펌프장에 25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연평균 20만kw의 전력을 생산한 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소(BSS)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흐름을 실시간 관리하는 가상거래시스템을 구축 - 교통 분야는 전기이륜차 91대 무상 대여를 결합한 연 18만 건 목표의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과 광명역세권 전기차 공유 서비스, 친환경 수요응답형 교통(DRT) 8대 운행으로 짜였고, 안전 분야는 스마트맨홀 15곳과 수위계 28곳을 연계한 AIoT 침수·홍수 통합관제를 연내 완료하며, 데이터 분야는 탄소거래플랫폼과 118종 도시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을 계획
지자체	□ 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특위 구성 추진(2026.09.13) - 충남도의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발전소 폐쇄 충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 생존권을 지켜낼 전담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동준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임을 11일 공개 - 결의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2036년까지 충남도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28기가 순차 운영 정지되면서 우려되는 대규모 일자리 축소와 세수 급감,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려는 취지로,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마련된 국가 지원 근거와의 연계를 구상 - 특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정의로운 전환정책과 제도개선, 고용충격 대응책, 취약 지역·계층 보호,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략을 다루며, 도내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운용 실태, 기본 조례 실효성을 점검하는 공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을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창원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평가 2년 연속 1위(2026.09.10) - 경남 창원시가 1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탄소중립 컨퍼런스'의 '2026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전국 1위에 올라 2년 연속 정상을 지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고,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이 '민·관 협력과 시민참여로 실현하는 창원형 탄소중립'을 주제로 성과를 발표 - 창원형 탄소중립 모델은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고도화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후위기 적응 및 녹색인프라 확충, 시민 참여 실천문화 확산 등 4개 분야로 짜였으며, 2018년 기준 관리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584만t을 2030년까지 40% 줄이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아래 2025년 이행실적에서 감축 목표 29만t 대비 42만t을 감축 - 이는 목표 대비 143%에 해당하는 초과 달성으로, 시는 기후대응기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업 전환 정책을 병행했으며,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된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이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산업도시로서 '청정에너지 수도' 모델의 전국 확산을 도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구윤철 부총리, ADB에 AI 혁신개발센터 출범 요청(2026.09.14)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면담하고 ADB의 AI 혁신개발센터(CAID) 조속 출범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AI 전환 수요에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연결하는 협력 추진을 요청하며, 한국이 추진 중인 글로벌 AI 허브에서 ADB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양정부	- 칸다 총재는 한국에 설립될 예정인 AI 혁신개발센터를 통해 한국과 ADB의 AI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구 부총리는 기후기술과 AI, 핵심광물 등으로 넓어지는 한·ADB 협력을 구체적 사업과 성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하고 한·중앙아시아 및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역내 경제 발전 협력 확대를 희망 -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현지 산업 발전과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가 제안됐고 칸다 총재도 주요 사업 협조요자를 통한 지원 준비와 구체적 투자 연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양측은 AI 전환을 뒷받침할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성과 ADB 역내 에너지 사업에 한국의 발전·송배전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 과기정통부, AI 스타트업 31개사 실리콘밸리 진출(2026.09.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지난 10~12일 사흘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31개사가 참여한 'K-글로벌@실리콘밸리 2026' 행사를 개최하며, 올해 15회째를 맞아 정부가 현지를 직접 찾아 국내 AI 스타트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협력·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운영 - 참여 기업은 현지 빅테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벤처캐피털(VC) 1대 1 투자 상담, 현지 기업·인재 네트워킹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았고, 'K-AI 테크 위크@실리콘밸리'에는 켄 골드버그 버클리 AI 연구소 의장과 김동수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대표, 김예린 아마존 로보틱스 수석연구원 등이 발표에 나서 330여명이 참석한 성황을 확인 - 구글 클라우드와는 참여 스타트업 발표와 1대 1 심층 기술 회의로 구성된 '구글 AI Day'를 열었고 매디슨 황 등 엔비디아 임원진과는 GTC 2027년 행사의 한국 개최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타진했으며, 글로벌 AI 평가 전문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와 NIPA 간 업무협약 체결로 퍼지컬 AI·AI 반도체 분야 성능평가 협력의 확대를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한-프랑스 정상, AI·반도체 미래 협력 확대 합의(2026.09.09) -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원자력과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기술, 핵심광물, 문화·인적 교류 등으로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자고 제안하며,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실질 협력 관계의 강화를 추진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만찬에는 한국 정부와 경제계·문화계 주요 인사 17명이 동석했으며,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문화계에서는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와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등이 참석 -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 헌화 당시 지평리 전투 참전 용사들을 만난 소회를 전하고 프랑스어로 '빵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를 뜻하는 '코팡'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가야금을 청자로 축소 제작한 공예품 '청자 가야금'과 한강 작가의 책을 선물해 양국 간 문화 교류 기반의 확대를 도모
지자체	□ 수원시, 328억원 피지컬 AI 스마트도시 실행체계(2026.09.14) - 수원특례시가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328억원을 투입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구축 실행체계를 갖추며,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전KDN, 가온로보틱스 등 8개 기업·기관과 기술 실증·데이터 활용 협력을 추진 - 이 사업은 수원시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20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최대 160억 원과 지방비 160억 원, 민간자본 8억 원을 확보해 2028년 12월까지 진행되며, '도시를 잇고, 생활을 움직인다-피지컬 인공지능 혁신거점 수원'을 방향으로 수원역과 화서동, 행궁동 일원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계획을 구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사업지역에는 교통 허브와 시민편의 허브, 안전·재난 허브, 혁신·교육 허브 등 4개 거점이 조성되고 카셰어링·주차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전통시장 로봇 배송, 순찰로봇, 시민 체감형 운동 서비스, 기업 공동실증센터 등이 포함되며,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도시 운영에 활용하는 종합 실증도시로의 도약을 기대
	□ 경북도, AI·항공·바이오 핵심 인재 2만명 양성(2026.09.15) - 경상북도가 AI와 항공, 바이오 등 대경권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재 2만명 양성에 나서는 가운데 15일 영남대학교에서 도와 영남대·경운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경일대 등 5개 지역 대학,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전략산업 앵커 대학 비전'을 선포하며, 대학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인재양성 체계의 구축을 추진 - 영남대는 'AI+X 허브'로서 400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면서 영천시와 경산시, 의성군을 잇는 삼각 실증 벨트를 구축하고, 경운대는 지·산·학·연·관·군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미래 항공 인재 6000명을 육성하며, 대구가톨릭대와 대구대, 경일대는 'K-BIC 바이오 융합 전공'을 공동 운영해 1만명의 바이오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 분담을 구성 - 도는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대학별 특화 분야와 지역 산업 수요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맞춤형 실무 인재를 키워 이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첨단 교육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지역 정주형 인재 생태계의 형성을 기대
	□ 서울시, 86조 투입 'G3 서울플랜' ...청년 AI 지원(2026.09.10) - 서울시가 2030년까지 86조 1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을 세계 3대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G3 서울플랜'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10일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최상위 전략을 발표하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5대 분야에 20대 전략목표와 100개 핵심과제를 담은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 - 핵심 과제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31만호 착공과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서울 청년 50만명에 대한 인공지능(AI) 이용권 제공, 서울역 광장 2배 확대, 자율주행버스 500대 운행 등이 포함되며, 건강안전도시와 동행성장도시, 주거안정도시, 기회활력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 - 시가 G3를 내세운 배경에는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2025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에서 서울이 런던·도쿄·뉴욕·파리·싱가포르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5위 싱가포르와 5점 차를 보인 판단이 있으나, 일부 주택 공급 목표 시점이 2031년이고 전체 사업비 중 32조원 이상을 국비와 민간에서 마련해야 해 시의회·중앙정부 협조가 관건이라는 전망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 지역화폐 연계(2026.09.1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5일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코나아이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쌓은 포인트를 올해 안에 29개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녹색생활 실천의 보상 수단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새로운 지급 방식의 도입을 추진 -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다회용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공유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전거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9월 기준 약 234만명과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17개 실천항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그동안의 지급 수단은 계좌 입금과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으로 한정 - 양 기관은 올해 안에 경기지역화폐 28개 지역과 김포페이 등 총 29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코나아이가 운영을 대행하는 전국 약 60개 지역 화폐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며, 남광우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지방기관	□ 강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넷-제로 실천단 4기 발대(2026.09.13) - 강원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난 12일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에서 강원도 탄소중립 도민참여단 '넷-제로 실천단 4기' 발대식을 열고 도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직접 실천하면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에 본격 착수했으며, 4기 실천단은 도민 23명으로 구성돼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 - 넷-제로 실천단은 도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공유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친환경 소비 등 생활 속 실천활동을 직접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적응 분야의 우수사례와 실천 아이디어를 함께 발굴·공유하는 역할을 수행 - 실천단은 활동 기간 동안 도민의 관점에서 일상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정유경 센터장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적극 공유·확산해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은, AI 고노출 일자리 증가분 80%가 수도권 집중(2026.09.15) - 한국은행이 15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AI 확산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지형'을 주제로 '2026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열고 인공지능(AI) 확산 이후 생성형 AI 활용도가 높은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고용 증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AI가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한은은 AI를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업별·지역별 AI 노출도를 산출했으며, 생성형 AI 노출도는 서울과 세종, 경기, 인천 순으로 높고 에이전틱 AI는 서울과 세종, 경기, 대전 순으로 나타난 반면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는 경북과 전남, 충북, 울산 등 비수도권에서 높게 확인 - 2023년 이후 3년간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의 취업자 수는 24만7000명 늘었고 이 가운데 수도권 증가분이 19만9000명으로 80.8%를 차지했으며, 에이전틱 AI 고노출 직업에서도 2025년 증가한 취업자 10만5000명 중 수도권이 9만3000명으로 88.3%에 달해 수도권에서만 노출도 0.1 상승 시 취업자 증가율이 1.0%p 높아지는 관계를 시사
	□ 한수원, 국제물주간서 수력 AI·양수 역할 논의(2026.09.09) -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26'의 주최기관으로 참여해 수력발전의 인공지능(AI) 활용과 양수발전의 전력망 안정화 역할을 논의한다고 9일 밝히며, 오는 1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물·에너지 분야 협력의 확대를 추진 - 행사는 '물·에너지·AI: 우리의 미래를 지키다'를 주제로 고위급 회의와 주제별 세션, 전시·구매상담회 등 약 5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한수원은 이날 수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발전과 양수발전을 주제로 2개 특별세션을 열어 이 가운데 '수력발전 특별세션'에서는 수력발전에 AI 기술을 접목해 설비 신뢰도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공동으로 여는 '양수발전-재생에너지 특별세션'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로서 신규 양수발전소의 역할과 확대 방안을 다루며, 김시영 한수원 수력처장은 수력·양수발전 운영 노하우에 AI 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 의지를 표명
	□ 에너지경제연구, AI 전력수요 속 LNG 장기물량 절벽(2026.09.09) - 민간LNG산업협회가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2회 LNG포럼'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 LNG 장기계약 물량은 2030년대 중반부터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신규 물량 확보와 수요 변동을 함께 고려한 전략 마련을 지적 -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LNG 장기계약 물량이 2038년 1700만t으로 줄어 수급관리수요의 약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장기계약 물량이 2035년 3300만t에서 2040년 900만t까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부족 물량을 현물로 조달할지 장기계약을 더 맺을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 - 김 연구위원은 물량 확보 시점과 규모를 사전에 점검하는 유연한 계약 포트폴리오를 주문했고 좌장인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해 왔으나 오히려 가스가 더 필요한 역전 현상이 도래하고 있다며 수급 위협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백업할 현실적 자원이 LNG뿐이라고 진단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롯데-KAIST, 바이오·탄소중립 R&D센터 준공(2026.09.13) - 롯데가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 바이오와 탄소중립, 첨단식품 등을 연구하는 산학협력 연구시설 '롯데 x KAIST R&D센터'를 준공했다고 13일 밝히며, 이곳에서 KAIST와 미래 기술을 공동 개발한 뒤 그 성과를 실제 그룹 사업에도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산학 연계형 연구개발 체계의 본격 구축을 추진 - 센터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연면적 4298㎡(약 1300평)로 롯데의 기부금 100억 원과 KAIST 자체 기금이 투입됐으며, 기초 연구와 실험, 시제품 제작을 거쳐 기술 사업화까지 수행하면서 바이오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에너지·소재·공정, 첨단식품·헬스케어 등 세 분야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 - 세부적으로는 시스템대사공학과 바이오연료·플라스틱,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분야를 다루고 연구 과정에 인공지능(AI)도 활용하며, 신동빈 롯데 회장은 11일 준공식에서 R&D센터가 학교와 기업의 경계를 넘어 더 큰 가능성을 만드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수진과 학생들의 도전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표명
기타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계획 재수립 촉구(2026.09.15) -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이 1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기후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후재난 대응 강화와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공식 요구하는 시민사회 행동을 전개 - 이들은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화되는데도 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천시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온실가스 747만2천t 가운데 41.6%에 해당하는 310만9천t을 2030년 한 해에 감축하도록 계획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감축 부담을 앞당기는 계획 재조정을 주장 - 이들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군·구별 시민햇빛발전소를 확대하고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보호대책 및 재난대피소를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각종 개발사업도 기후·에너지 정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장시정 기획단장은 오는 19일 '9.19 기후정의행진' 동참을 호소
	□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시민 환경전문가 30명 배출(2026.09.13) -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지난 11~12일 경주에서 '2026 사회환경실천지도사 2기 양성과정'을 운영해 경주시민 3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기르는 민간자격 과정을 통해 지역 기반 환경교육을 이끌 시민 환경전문가의 양성을 본격화 - 이번 과정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의 이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마이크로티칭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고 강의 위주의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퍼실리테이션을 접목한 참여형 학습 방식을 도입했으며, 교육생들은 지역사회 환경현안을 직접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면서 교육기획·협업·의사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 - 특별강연에 나선 영화감독 정초신은 '왜 영화감독은 친환경을 의심하는가?'를 주제로 필름 시대부터 AI 시대까지 기술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적 역설을 조명했고, 인간의 편의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혁신이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새로운 소비를 촉진하는 이중적 구조를 설명하며 교육생들에게 환경인문학적 관점을 제시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KT클라우드, 2031년까지 AIDC 1GW 구축 목표(2026.09.15) - KT클라우드가 1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공공기관 고객과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KT클라우드 서밋 2026'을 열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점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공급하는 사업 전략을 공개하며, 2031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20여개 사이트를 구축해 1GW 이상의 인프라 공급을 추진 - 공용준 KT클라우드 클라우드본부장은 자체 퍼블릭 클라우드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등 서로 다른 환경을 고객이 하나의 클라우드처럼 관리하도록 통합하는 전략을 제시했으며, 계정·권한 관리부터 포털과 모니터링, 비용 가시성까지 묶어 2027년 초까지 '싱글 클라우드 경험'을 완성하는 구상을 설명 -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킨 개념으로는 데이터와 GPU·NPU 등 컴퓨팅 자원, AI 모델, 애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를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하는 컴포지트 AI가 제시됐으며, AI 서비스가 특정 모델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모델과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조합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시장 변화의 대응을 시사
	☐ 엑스페릭스, 공공 AX에 국산 NPU 풀스택 첫 적용(2026.09.15) - AI 솔루션 전문기업 엑스페릭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공공 AX 프로젝트' 교육훈련분과 사업에 참여해 퓨리오사AI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소버린 AI 풀스택'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히며, 국산 NPU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한 풀스택을 공공기관 실제 업무에 적용한 첫 사례를 확보 -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내 부정수강 및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AI로 탐지·지원하는 것으로 엑스페릭스는 학습 데이터 구축·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 온프레미스 환경 구축과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담당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했으며, 핵심 추론 인프라에는 퓨리오사AI의 2세대 AI 가속기 'RNGD(레니게이드)'를 적용 -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기존 2~3개월이 소요되던 부정수급 관련 데이터 분석·검증 업무를 2주 이내로 단축했고 채팅 기반 AI로 복잡한 출결·접속 데이터를 쉽게 질의해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엑스퍼릭스는 최근 AI 솔루션 기업 에이뉴트를 합병해 공공 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
	□ 퓨리오사AI, 싱가포르 법인 설립...아태 시장 공략(2026.09.11) - 퓨리오사AI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공지능(AI) 추론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1일 밝히며, 현지 법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업개발과 영업, 기술지원 거점으로 운영해 2세대 AI 칩 레니게이드 기반 인프라의 글로벌 상용 구축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춘 현지 고객·파트너 지원 강화를 추진 - 싱가포르 법인은 애디슨 치 퓨리오사AI 아시아태평양(APAC) 영업 부사장이 이끌며 회사는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태 지역의 기업과 정부, 클라우드 사업자, 인프라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인력도 늘려 고객의 초기 기술 검증부터 상용 환경 구축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포르투갈 리스본에도 해외 거점을 운영 - 레니게이드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모델, 에이전틱 AI 등의 추론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로 지난 1월 양산을 시작했고 기존 데이터센터에서도 별도의 대규모 인프라 변경 없이 도입하도록 전력 효율을 높인 점이 특징이며, 현재 삼성SDS와 LG AI연구원 등에 공급 중인 실적을 확인
해외	□ 엔비디아, 엔트로픽 IPO에 13.5조원 투자 논의(2026.09.14) -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인 엔트로픽의 기업공개(IPO)에 앵커 투자자로 참여해 최대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다만 관련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함께 전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엔트로픽은 이번 IPO에서 최대 1000억달러(약 135조원)를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해 11월 엔트로픽에 10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5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고 이는 엔트로픽이 엔비디아 칩 기반 MS 클라우드 서비스 300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확인 - 엔비디아의 투자 계획은 반도체 기업 암(Arm)이나 스페이스X IPO처럼 초대형 공모에 빅테크·국부펀드가 앵커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엔트로픽은 엔비디아 GPU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구글·아마존 칩 사용을 늘리고 자체 칩 설계팀을 신설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나스닥 상장 마무리를 계획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